

# 경고음 커지는 광주·전남 주력산업

### 광주 올 차 수출액 21%·타이어 31% 감소...성장동력 떨어져 전남 석유산업·철강제품 내년부터 조정 국면 돌입 할 듯

광주-전남 주력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비관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주력산업, 내년 전망도 암울=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019년 산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의 내년도 국내 제조업 기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부진을 예상하고 반도체와 조선은 실적이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미나에서는 산업별 전문가들이 반도체와 자동차·자동차부품, 조선·기계, 전자·전기, 철강, 석유화학 등 6개 주력 제조업과 건설업의 내년도 전망을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와 수출 물량 제한 가능성, 리콜 등 품질비용의 증가 추세, 중국 시장 부진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 분야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설

비(ECC) 신·증설 등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며 업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지역주력산업, 경쟁력도 위기=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8대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업종은 3년 뒤 경쟁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지난 7~13일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선박·자동차·석유제품·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한국은 현재는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지만 3년 후에는 선박 한 업종에서만 경쟁력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업종별 주요 경쟁국은 자동차의 경우 일본, 반도체는 미국, 중국은 선박·석유제품 등으로 짝했다.

◇지역성장동력 창출 고민 커=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광주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14조1760억원(2016년 기준)으로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44.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 부가가치역도 광주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10조)의 42.4%(4조2220억원)에 달하고 광주지역 1차 자동차 부품업체 중 74.1%(2016년 기준)가 가이차에 납품하는 등 부품업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타이어 산업에 대한 불안한 전조(前兆)도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액은 12억1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21.1%나 줄었다.

관련 업종인 타이어 수출액도 1억2100만달러에 머물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6%나 감소했다. 지역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정도다.

반도체와 가전 분야도 안심하긴 이른 다. 지난 3분기까지 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액은 11억7900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12억4800만달러)에 견줘 5.5% 감소했고 냉장고 등 백색 가전 수출액도 3분기까지 2억2500만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3.2%나 쪼그라들었다.

전남의 대표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은 그나마 긍정적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무역협회 통계로 보면 전남지역 석유제품 수출액은 올 3분기까지 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늘었고 철강판 수출액도 3.8% 증가했다.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설비(ECC) 신·증설 등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며 업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내년도 전망이 나온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철강 산업도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과 감소 정책,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촉발된 철강 경기 호황 사이클이 올해 일단락돼 내년부터는 조정 국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장, 순천 '소통길' 기념식수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은 최근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세무서를 찾아 향기로운 '소통길'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순천세무서와 순천시립연향도서관 사이에 조성된 '소통길'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순천세무서 제공)

## 한은 1년만에 금리인상 유력

### 이달 0.25%포인트 인상 전망 가계부채·한미 금리차 부담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은이 이날 1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따른 우려와 가계 채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동위 이후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금리인상 소수 의견이 2명으로 늘었고 이주열 총재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금융안정을 강

조하는 발언으로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정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가율보다 여전히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발 금리인상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총재는 또 내외금리차에 좀더 경계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역전 폭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약 3회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이 벌어질진 않겠지만 위기감은 커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본부세관,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관세 아카데미' 성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23일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한 '관세 아카데미'를 성공리에 마쳤다.

관세 아카데미는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과 16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조선대학교에서 실시했다.

관세사 자격증과 관세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강의와 새내기 공무원으로서부터 공무원시험 경험담 듣기, 공직생활 체험을 위한 무안공항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 아카데미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정보제공 및 무역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3D 효과 자동차용 리어 램프 국내 최초 개발

광기술원 IoT 조명연구센터

3D 효과를 주는 자동차용 리어 램프가 개발됐다.

25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 IoT 조명연구센터는 최근 인피니티 미러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3

D 리어램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인피니티 미러(Infinity mirror) 기술은 주로 특수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던 기술로, 한 쌍의 평행 거울을 이용해 연속된 작은 상이 겹치게 하는 구조로, 원근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기술원은 민간업체인 엘이디라이텍

㈜과 공동으로 기존 후미등 기능에 더해 입체 효과가 뛰어난 리어 램프를 개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운전자 상황(정지, 방향전환 등)을 알려주는 기능 뿐 아니라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우수성,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 후미등

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광기술원 설명이다.

광기술원은 여기에 유럽 자동차 규격을 충족시키는 성능을 갖추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3D 입체감과 디자인을 구현한 리어 램프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고용창출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차 '정비 인턴' 다음달 10일까지 채용

현대차는 오는 28일부터 '2018년 현대차 정비 인턴'의 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본사와 전국 2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고장을 진단하고 고난도 정비를 수행할 신입사원을 뽑는다.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전공자뿐 아니라 정보기술(IT)인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자 이상이며 지원 희망자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com)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HMAT),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턴 사원은 내년 1월 4주간의 기초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에 투입된다.

실습 종료 후 우수 수료자는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3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자	
6 8 18 35 42 43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90,693,671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65,949,044	47
3 5개 숫자 일치	1,575,804	1,967
4 4개 숫자 일치	50,000	99,132
5 3개 숫자 일치	5,000	1,643,491



#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육각형시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콘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